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데 많은 공헌을 해 온 루이스 랭카스터(사진) 미국 캘리포니아주립 버클리대 명예교수가 1월 27~29일 한국을 찾았다.

자신이 의장을 맡고 있는 세계전 자문화지도협의회(ECAI)의 서울 대회(5월 22~24일) 준비를 위해 방한한 랭카스터 교수는 1월 28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서구에서 동북아시아 불교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같은 동북아에 속해 있으면서도 한국 불교는 중국이나 일본 불교에 비해 소홀한 대접을 받아온 게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ECAI 서울 대회가 한국 불교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1996년 랭카스터 교수의 주도로 설립된 ECAI는 문화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표준화 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단체로 전 세계 21개국 800여 명의 학자가 참여하고 있다. 인터넷상의 전자지도 위에 역사나 문화, 문화재 등의 인문 자료를 구현해 내는 전자문화지도는 각 나라별로 370여 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될 정도로 세계적 추세다.

김지전 박사 1주기

‘화엄사상과 선’ 발간



1997년 독일 함부르크 대학에서 유식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슈미트 하우젠 교수와晤를 나누는 생전의 김지전 박사 모습.

금강선원서 추모법회

한국 화엄학의 독자성을 밝히는 데 평생을 바친 김지전(1931~2001) 박사의 1주기를 맞아 그를 기리는 그의 논문집이 책으로 묶어져 나왔다.

신라시대 의상 스님에서부터 고려시대 군여·지눌 스님을 거쳐 조선시대 도봉·유문 스님과 김시습에 이르는 의상 스님 계통 화엄 연구의 선구자였다. 김 박사는 특히 지난 77년, 10년에 걸친

“일본 화엄종 신라통해 전래” 밝혀

종래 “중국서 전해졌다” 설 뒤집어

민족사상장 운동화는 김지전 박사 추모 1주기를 맞아 대표적 논문 16편을 모은 <정봉산고(正峰山稿) 화엄사상과 선(禪)>을 최근 출간했다. 1997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을 정년퇴임할 때 기념 논총이 발간된 적은 있으나 논문집은 이번이 처음이다. 논문집은 생전에 발표된 논문을 모두 모은 것은 아니다. 제록에서 보듯 화엄사상에 관련된 대표적 논문을 연구 대상이 된 인물 중심으로 엄선했다. 이는 김 박사가 ‘해동 화엄의 선구자’로 불릴 정도로 생전의 연구 활동이 문헌학적 연구 방법을 토대로 한국 화엄의 독자성을 밝히는 데 집중했기 때문이다. 김 박사는

연구 끝에 펴낸 <군여대사화엄학전서>에서 일본의 화엄종이 종래 일본학계의 주장처럼 중국에서 전해진 것이 아니라 신라에서 전해졌음을 밝혀내 일본학계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논문집 첫머리에 실린 ‘신라 화엄학의 계보와 사상’은 바로 신라 화엄학에 대한 통찰을 뒤집는 논문이다. 원효계가 주류로 인식돼 오던 당시 학계에 의상계가 신라 화

엄학의 주류임을 밝히면서, 의상계 인물인 심상이 일본에 화엄을 전해준 인물임을 밝히고 있다.

의상의 법취고(法趣考)에서는 의상 스님의 한자 표기가 일반에 널리 쓰이는 것처럼 ‘義禪’ 또는 ‘義禪’가 아니라 ‘相’자로 쓰여 있다는 것을 사료를 통해 증명해 냈다.

선과 화엄의 관계는 우리가 공식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적대 관계 혹은 우열관계가 아니라 상의상자(相依相資) 관계임을 보조국사 지눌을 통해 밝힌 ‘지눌에서의 선과 화엄의 상’, 의상계 해동 화엄의 사상이 조선시대 생육신의 한 사람인 설암 김시습에게 이어졌음을 밝힌 ‘설암의 화엄과 선의 세계’은 의상계 화엄의 전통과 특색을 밝힌 논문들이다.

이밖에도 ‘해동사문 원효상 소묘’ 조소묘 찬신라국 원효대사전 병서 ‘의상전 재고’ ‘신라 의상 <백해도장발원문> 체한 약해의 보주현보’ ‘사문 도선상 소묘’ ‘군여전 재고’ ‘법계도원봉기’의 텍스트 재고’ ‘보조국사의 화엄관 소묘’ ‘경허당 산고’ ‘정주사산비명 발견기’ ‘선 문헌연구’ ‘경향단경 수상 노트’ 등의 논문을 실었다.

한편 김 박사가 타계한 지 1년이 되는 7월(음력 12월 26일), 서울 개포동 금강선원(선원장 허거 스님)에서 1주기 추모 법회가 열렸다.

김 박사가 77년 설립한 대한전통불교연구원을 계승한 한국전통불교연구원 허거 스님은 논문집 간행사에서 “박사께서는 일본 유학시절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인도문학 학위를 받음으로써 당시 학계에 대한 통찰을 위해 애썼던 아낌이 없었다”고 김 박사를 회상했다. ☎2445-8484

학술담당= 권형진 기자 jyny@buddhapa.com

高僧 다시보기

무학 대사

무학자초(無學自超, 1327~1405) 스님은 이성계의 조선 창업을 도와 한양을 왕도로 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정도만 세간에 알려져 있다.

경남 함천이 고향인 무학 스님은 1344년 18세에 송광사에서 출가해 용문산에서 당시 유행하던 임제선종을 체득했다. 그 후 원나라 북경의 법원사에 머물고 있던 지공 스님과 나옹 스님에게 법을 사사 받음으로써 삼화상과 인연을 맺었던 고승이다.

스님은 1366년에 귀국하여 양산 원효암에서 나옹 스님으로부터 불자를 받고 송광사에서 의발을 전수 받았다. 나옹 스님이 주관하는 화엄사의 불사에 참여하기도 하였는데, 화엄사 불사가 중단되고 나옹 스님이 입적하자 스님이 명산대찰을 유력하며 두 스승의 추모불사를 범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였다. 그러던 중 안변 석왕사 토굴에서 이성계의 조공하여 혁명을 종용하였는데 이는 성리학계를 대표해 정도전이 이성계에게 혁명을 종용



신록사 무학대사 진영.

“행함” 중 영아행이 제일” 강조

입적 석달도 안돼 강한 억불책

한 것과 비견된다.

조선 건국 직후 스님은 천태종의 조구 스님과 더불어 마지막 왕사와 국사에 책봉된다. 때문에 스님이 생존해 계실 때만 해도 억불 정책은 아직 본격적으로 전개되지 않았고, 불교계에 중요한 시책 역시 이 때 이뤄지고 있다. 고려말 이래 신진사류들이 억불운동을 펼치는 데 도화선이 되었던 연복사 5층탑의 낙성식을 주관했으며 광명사에서 법회를 주관하며 매일 수 백명이 모여들기도 했다. 스님은 화엄사가 삼화상의 터전이 되게 하였으며 조파를 확정하여 <조파도(祖波圖)>를 지었다. 삼화상의 부도가 화엄사에 세워질 수 있었던 것도 스님 때문이며, 이를 바탕으로 불교계를 재편하고자 했다. 또한 화엄사에 머물 때는 당시 태상왕이던 이성계에게 불교를 보호할 것을 종용하였는데 스님이 입적하자 3개월이 지나지 않아 한국 역사상 가장 심한 억불시책이 시행된다.

스님은 8만 가지의 행함 가운데서 정맥이 행인 영아행(嬰兒行)이 제일이라고 강조했다. 평생시엔 아이 같기도 안목을 갖춘 이를 만나면 화상과 같 날이 부딪듯 버티었고, 옷 한 벌과 바닷대 한 개로 지낼 정도로 스스로를 낮추었다. 그러나 나라에서는 존송함이 상대가 없었을 정도로 위상이 높아서 선각(仙覺), 나옹의 직통이요, 태조의 스승이었던 것이다.

조선 초이래 지금까지도 사찰의식에서는 지공·나옹·무학 세 스님을 가장 존경하여 받들고 있다. ■한양대/동국대 강사

“한국불교 알리는데 의의 불상 등 표준화 큰기대”

ECAI서울대회 준비차 내한 랭카스터 교수

랭카스터 교수는 “인터넷에서 자신이 원하는 자료를 찾는 것은 이제 일상화된 일이지만, 이들 자료들에 접근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며 “ECAI는 각종 문화 자료들을 표준화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 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시대의 정보기술과 인문학의 만남을 주제로 열리는 서울 대회에 대해 랭카스터 교수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을 가진 한국이 표준화 작업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한국 불교를 알리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랭카스터 교수는 “한국불교는 중국이나 일본 불교와는 다른, 나름의 종교적 전통을 지녔다”며 “특히 불상이나 불탑 등 미술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일구어온 만큼 전자문화지도 사업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1979년 해인사 고려대장경 영문 목록을 발행해 고려대장경의 존재를 세계에 알린 랭카스터 교수는 <불교의 한국 전래> <동일기의 불교> <한국 불교 경전> <고려불교-국가종교> <조선불교-억압과 변형> 등을 펴내는 등 미국내 한국 불교 연구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다.

학술단신

불교학 연구회 겨울 워크숍

불교학연구회(회장 해주 스님)는 6~7일 전남대 수련원에서 겨울 워크숍을 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불교학 연구의 방법론에 대한 논의와 함께 대중불교의 근간이 되는 종편학의 현황과 과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불교학 연구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종범 스님(중앙승가대 총장)과 기무라 키요타카 전 동경대 교수가 발표하고, 김성환(동국대), 이종표(전남대) 이태승(위덕대) 교수 등 7명이 ‘종편학의 재문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2260-3128

보조사상연구원 학술발표회

보조사상연구원(회장 법산은)은 23일 오후 1시 동국대 덕암 세미나실에서 제43차 학술발표회를 연다. 인경 스님(보조사상연구원 연구실장)이 ‘신화, 종말’을, 이덕진 고려대 강사가 ‘보조, 양명학’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2733-5315

“바둑전과 불교가 결정적 역할” 김성래 교수 논문



“바둑은 불교와 함께 들어왔다.” 바둑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불교가 결정적인 매개체로 작용했음을 밝혀낸 논문이 발표됐다. 프 로 바둑기사인 김성래 2단(명지대 바둑학과 겸임교수·사단은 최근 통과된 명지대 교육대학원(석사교육) 석사 학위논문 ‘한국 고대 바둑 보급에 대한 연구’에서 ‘바둑은 불교를 매개체로 승려들을 통해 중국에서 삼국(한국)으로, 다시 일본으로 보급되어 갔다’고 주장했다.

처음 받아들인 삼국시대는 중국의 위진남북조 시대에 해당하는데, 당시 중국은 노장 사상의 영향으로 승려 사회에서 바둑이 성행했다. 김 2단은 “고구려를 왕래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스님들 중에는 당연히 바둑을 아는 스님들이 있었을 것이며 이런 경로를 통해 바둑이 고구려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2단은 나아가 “백제도 동진과 불교 교류가 있었음을 볼 때 바둑의 유입과 무관하지 않고, 신라 역시 고구려 승려나 양나라의 승려 등을 통해 바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경로는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삼국은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교류를 함으로써 발전해 갔는데, 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바둑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김 2단의 결론이다. 김 2단은 “일본 동대사 정각원에 전해 오는 바둑통 위에 보이는 코끼리와 연꽃 문양 또한 이 시대 바둑이 불교와 밀접한 관계 있었음을 입증해 주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Advertisement for Buljeon (불제) LED lights. Features images of a pagoda and Buddha statues. Text includes: 불제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 10W, 견견지용 초, 행사소풍 및 손잡이대, 등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사찰전구, 불제대원기업, 동국석재조각예술원.

Advertisement for Dongguk Stone Sculpture Art Studio (동국석재조각예술원). Features images of various Buddhist statues. Text includes: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